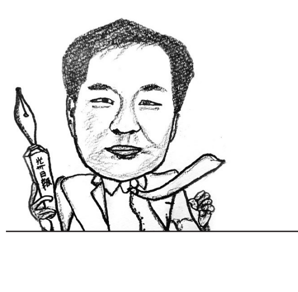
소띠 해에 들어보는 소 이야기



주 필

동요 '송아지'에 나오는 얼룩소는 당연히 젖소일 것이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홀스타인 젖소.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해 온 세월이 길었다. 그게 우리 재래종 칡소라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후였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몸에 칡덩굴 같은 어룽어룽한 무늬가 있는 칡소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얼룩소를 젖소로 지레짐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의 '향수'(鄕愁)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한데 나중에 의문이 생겼다. 우리가 아는 황소에는 얼룩무늬가 없는데 시인은 어찌해서 '얼룩빼기 황소'라 했을까? '황소'라는 낱말에 그 비밀의 답이 있다. 그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황소라 하면 흔히 누르'황'(黃)을 연상하지만 아니다. 여기서의 황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렁소가 아니라 역시 칡소일 가능성이 많다.

황소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한(大)+쇼(牛)의 구조로 '한 소'가 변해 '황소'가 되었다. 그러니 한마디로 누렁소가 아니라 '큰 소'다. 황새도 마찬가지다. 한(大)+새(鳥)에서 비롯됐으니 역시 '큰 새'라는 의미다. '크다'라는 뜻의 '한'이 붙은 땅이름도 쌔고 쌨다. 대표적으로 대전(大田)을 들 수 있겠다. 이는 '한밭'(큰 밭, 즉 넓은 들판)에서 비롯된 한자 지명이다. 원래는 '한재골'(큰 재가 있는 마을)이라 했던 담양의 대치리(大峙里)나 강남에 있는 대치동(大峙洞)도 마찬가지다.

칡소 사라지고 누렁소만 남아

이제 황소가 꼭 누렁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연해졌다. 만약에 황소가 누렁소라면 '얼룩빼기 황소'는 '형용모순'(形容矛盾: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 가령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이 되고 만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기르던 황소에는 '누렁이'도 '검둥이'도 '얼룩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중 '검정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황희 정승의 일화에도 나온다.

시골에서 한 농부가 소 두 마리를 데리고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마침 황희 정승이 그곳을 지나가다 농부에게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농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누렁이는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검정소는 꾀가 많아 다루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황 정승이 "여보시오. 뭘 그런 걸 다 귀엣말로 합니까?" 하니 농부가 말하기를 "저들 짐승들도 일을 못한다고 하면 듣고 싫어한답니다" 했더란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색깔의 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선시대 신윤복과 김홍도의 우경도(牛耕圖)에 황소·흑소·칡소가 보인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도 이들 소가 여물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황색을 제외한 다른 색 한우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소 그림을 즐겨 그렸던 화가 이중섭은 시작(詩作)에도 소질이 있었던지 '소의 말'이라는 시(詩)를 남겼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헤치다" 그는 1951년 제주도 피란 시절 이 시를 단칸방 벽에 붙여 놓았다는데…. 당시 이를 본 조카가 "삼촌, 시도 써요?" 하고 묻자 화가는 "그냥 소가 말한 걸 옮겨 적었지"라고 답했다. 다시 조카가 "소가 조선말을 참 잘하네요" 하니까 그는 "조선의 소니까" 하며 함께 웃었다고 한다.

소는 순박·근면·성실의 상징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동시 '송아지'를 쓴 시인 박목월도 '황소 예찬'이라는 시를 남겼다. "슬기롭고 부지런한 황소여/ 산을 옮길 힘을 가졌으나/ 어린 아기처럼 유순하고/ 어떤 어려움도/ 성실 근면으로 이겨 내는"

엊그제 설을 쇠었으니 이제 비로소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가 시작됐다. 물론 사람들은 지난 1월(양력) 정초부터 이미 '흰 소의 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신축년의 신(辛)은 오행상 금(金)이며 색은 흰색(白)이라면서. 하지만 옛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황금돼지 해'니 '백말띠'니 하는 말은 일본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열두 띠에다가 오색(五色)을 돌아가며 덧칠하는 것은 상술에서 비롯된 속설이다." (박성진 서울여대 중문과 교수) 박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한다. "오행의 색은 흑(黑)·백(白)·적(赤)·청(靑)·황(黃)인데 '파란 호랑이의 해'나 '빨간 양의 해'가 되면 또 어떤 요설로 포장할지 궁금하다."

올 한 해도 빈 집에 소 들어오듯

아무튼 올해는 소띠 해. 한데 소는 어찌해서 12지지(地支)의 두 번째 자리에 놓인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음양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다. 그중 널리 알려진 것이 쟁선설(爭先說)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 하늘의 대왕이 정월 초하루 천상의 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동물부터 높은 지위를 주기로 하고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다른 동물에 비해 느린 소는 하루 전 그믐날 밤길을 나섰다. 한데 이를 눈치챈 쥐가 소 등에 올라탔다가 마지막에 뛰어내려 제일 먼저 도착했다. 소는 당연히 두 번째가 되었다. 쥐의 영리함과 소의 성실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열두 동물의 순서에 대한 의문은 지금뿐만 아니라 남송(南宋) 시대부터 제기되고 논란이 됐다고 한다. 어찌 됐든 십이지지는 원래 동물과 상관이 없었으며 고대 중국에서 초목의 성장을 나타냈다는 설이 유력하다. 예를 들면 '자'(子)라는 한자는 쥐가 아닌 식물의 씨앗을 의미하며 그래서 맨 처음 나온다는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소를 깨달음의 상징으로 본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소 찾는 일에 비유하는 그림이 사찰 벽화에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십우도(十牛圖) 또는 심우도(尋牛圖)라 불린다.

올해가 소의 해이다 보니 소와 관련된 사자성어도 자주 거론된다. 그중 하나가 '호시우행'(虎視牛行)이다. '호랑이처럼 멀리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라는 좋은 뜻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생각난다. 마구 치고 나가는 이재명 지사에 비해 그는 지나치게 신중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도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소띠 해를 맞아 소 이야기가 꽤나 길었다. 오늘도 우수마발(소의 오줌과 말의 똥, 牛溲馬勃)처럼 보잘것없는 이내 글을 소의 인내심으로 읽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가 어서 빨리 물러나고,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전국 섬 65% 다도해 전남, '한국섬진흥원' 최적지

행안부 공모…8월 정식 출범 계획
道, 설립 연구용역 추진·방안 제시
유치시 5년간 생산유발 407억 효과

다도해를 품은 전남도가 올해 8월 설립될 행정안전부의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나섰다. 신안군 신의면과 하의면을 잇는 삼도대교와 하의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한국섬진흥원'은 전남도가 정부에 그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안한 기관이다.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는 전남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사실상 전남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남 등이 뒤늦게 유치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17일 "행안부가 16일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열어 설립지역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로, 광역자치단체가 2개 이내 후보지(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균형발전, 입지여건, 섬 발전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및 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설립지를 정해 8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 섬진흥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유치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섬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연구용역(2018~2019)'을 추진, 진흥원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섬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사)섬 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등 섬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전남도는 이런 당위성을 들어 한국 섬 진흥원의 전남 설립 필요성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건의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는 지역언론 홀대·차별 시정해야"

한신협·대신협, 언론재단 상임이사진에 지역언론 출신 임명 건의

한국 지역 언론의 양대축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사장·이하 한신협)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가 '정부의 지역언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신협과 대신협은 16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낸 건의문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중앙정부는 물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서울에서 발행되는 언론이나 방송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지역언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암울한 현실을 타개 하기 위해 먼저 "조만간 개편될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진에 지역언론 출신을 반드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상임이사 자리 중 하나인 신문유통원장에 유일한 지역언론 출신이 있긴 하지만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언론 출신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은 지역언론인 출신을 임명해주고, 위원장은 지역언론인 출신 중에서 임명해줄 것"도 건의했다.

2005년 출범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줄곧 서울언론 출신이거나 학계 인사들이 맡아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싼땅 대지, 156평 중심상업지역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9층 오피스텔 허가 득
PF 28억 확정
매매 – 20억(조정가)
(주)신세계. 010-3605-500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즙,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여수시 공고 제2021-488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지정 열람공고

여천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8.

여 수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구 역 별	위 치	면적(㎡)	비고
여천역 주변지역	여천동 903-10번지 일원	363,688	

나. 제한사유
-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여천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계획 중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은 물론 부동산 투기예방,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다.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라. 제한제외대상
- 공공시설(목적)로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개발행위허가제한 최초 고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심의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마. 제한기간 : 최초 고시일(2020.10.15.)로부터 36개월

2. 열람기간 : 2021. 2.18. ~ 3. 4.(14일간)
3.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열람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계획과 ☎ 061-659-4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창모(540703-X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금남길 68-7(서내동)

피상속인 망 김창모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1629호로 신청하여 한정승인신고·수리되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8일

• 상속인 : 1. 김태한(770511-XXXXXXX) 울산 북구 중산로 48, 101동 1604호 (중산동,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1단지)
2. 김계한(791130-XXXXXXX) 나주시 남교1길 19, 가동 207호 (이창동, 백조아파트)
3. 김미진(820715-XXXXXXX) 나주시 대길2길 131-3(대기동)
• 신고기간 : 2021. 2. 18. ~ 2021. 4. 29.
• 채권신고장소 : 상기 상속인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을동(350904-X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83

피상속인 망 이을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느단42호로 신청하여 2021년 2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8일

• 상속인 : 1. 이순남(400905-XXXXXXX) 순천시 왕지5길 9-26, 202동 903호 (왕지동, 두산위브아파트)
2. 이점례(610910-XXXXXXX) 광양시 광장로 70, 209동 1901호(중동, 성호아파트)
3. 이정임(670830-XXXXXXX) 부산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 203동 2406호 (다대동, 삼환아파트)
4. 이영희(690525-XXXXXXX)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03번길 18-3(사파동)
5. 이춘희(701216-XXXXXXX)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15, 105동 701호 (금전마을계룡리슈빌)
• 신고기간 : 2021. 2. 18. ~ 2021. 4. 29.
• 채권신고장소 : 상기 상속인의 주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621-1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장성군 추모공원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6. 공고기간 :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토지 및 신고처 : 나라개발 (광주 광산 북문대로 419)
8. 신고방법 : 분묘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호적, 제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이후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1년 2월 18일

위 공고인 : 김병헌(010-6395-1828)

산행안내

2월 21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1일(일) 경북 군위면, 아미산&방가산 산행, 염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옆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주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2월 28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8일(일) 강원도 태백&백두대간의 중심 "함백산"산행, 염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주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